93

2007년 2월 26일 발행 통권 제93호

退溪學釜山硏究院報

www.toegyehbs.or.kr / E-mail : toegyehbs@korea.com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발행처:社團法人 退溪學釜山硏究院 釜山市釜山鎭區 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丁亥 新年賀禮會

2007년도 新年賀禮會가 지난 1월 8일 부산적십자회관 6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本院과 釜山淡水會, 博約會釜山支會가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釜山淡水會 主管으로 치러졌다.

趙漢奎(부산담수회 부회장)회원의 司會로 진행된 신년하례회는 開會宣言과 國民儀禮 및 相見禮에 이어 李相熙 釜山淡水會長의 新年辭와 李圭衡 本院 理事長, 博約會釜山支會 金時泰 會長의 新年辭 순으로 擧行되었다.

한편 儀典行事에 이어진 記念講演은 本院 金尙勳 院長이 맡았는데 「우리 民族 固有의 傳統 詩 文學」이라는 主題의 講演으로 행사의 大尾를 장식했다.

≫ 차례

春花秋實 …… 李圭衡 (2)
新年휘호 …… 權五崇 (3)
江山에 무지개 한 채 …… 金尙勳 (3)
새해 인사말씀 …… 李相熙/金時泰 (4)
退溪先生 言行錄·門人錄 …… (5)
나의 日常과 그 周邊 …… 李枝鮮 (8)
歷史를 記述하는 書法 …… 兪英玉 (10)
退溪선생과 瞻慕堂 林芸 …… 朴永鎭 (13)
뿌리 가꾸어야 가지 무성하리 …… 李炳壽 (15)
수양자(收養子)과 계후자(繼後子) …… 鄭景柱 (16)
靑山不老 …… 柳昌熙 (17)
漢文文法 …… 趙柄悟 (19)
연구원소식 …… (20)
퇴계가 바라본 우주 …… (22)

春 花 秋 實

– 丁亥年 元旦에–

李 圭 衡
(本院 理事長)

희망찬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年初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담수회 주관으로 퇴계학부산연구원과 박약회 부산지회 회원님들이 합동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이 좋은 자리에서 서로가 덕담을 주고받고,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老年을 장식하느냐로 화두를 삼았으면 합니다.

퇴계선생께서 건강의 비결로 삼으신 「活人心方」에는 병 없이 천수를 누리는 방법으로 保養法, 養生法, 導引法, 治心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양법은 음식으로 섭생을 조절하는 것이고, 양생법은 새벽에 일어나 적당한 운동으로 기를 모으는 것이고, 도인법은 대자연의 원기를 끌어들이는 요가와 같은 운동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治心法인데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무병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래에 1, 10, 100, 1,000, 10,000의 건강 비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착한 일 한가지씩 하고, 글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고, 10,000보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思無邪, 行好事, 莫欺心, 行方便, 守本分, 莫嫉妒, 務誠實, 順天道, 知命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건강 비결에 三快와 五過라는 것이 있습니다. 三快는 快食·快眠·快便으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대소변 편히 하라는 것이요, 五過는 과식·과음·과로·과욕·과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 들어 대접 받는 7가지 비결로 집과 환경, 몸을 깨끗이 하고,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하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 새해는 '건강관리의 해'로 정하시어 건강 체크 잘 하시고, 좋은 음식 적당히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절대 받지 마시고, 내 손자녀, 이웃 누구에게든 좋게 보이는 늙은이로 春花秋實, 아름다운 餘生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譯 (上秦皇逐客書　李斯)

泰山은 흙을 외부에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巨大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能成其大), 河海는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能就其深)이다.

〈新春 頌時調〉

江山에 무지개 한 채

民笠 金尙勳
(본원 원장)

새해 새날이 밝았다
山과 江도 새 모습이다

하늘도 靑玉 빛이요
바다도 靑玉 빛이다

온 겨레 가슴 가슴에
담은 꿈도 靑玉 빛이다

돌아보니 千辛萬苦
가시발길이 더 많았다

더러는 천길 奈落 앞에
팽개쳐지기도 했었다

그래도 七顚八起의 意志로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泰山은 歲月이 갈수록
푸르름을 더하고

長江은 물굽이를 더 할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

江山에 무지개 한 채
덩그렇게 걸어보자.

2007. 새 봄에

忠孝 · 崇祖의 精神을

- 釜山淡水會長 新年辭 -

李相熙會長

黃金 돼지 福을 준다는 希望의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과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고 지난해 못다 하신 일 今年에 成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淡水會, 退溪學研究院, 博約會 會員들이 모여 새해 人事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40餘年前 學界, 財界, 官界에서 退任하여 儒敎 精神을 繼承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組織한 것이 釜山淡水會이고 淡水會가 主軸이 되어 退溪學研究院과 博約會 支部가 出帆하여 釜山地域의 儒風을 振作하고 傳統文化를 繼承 維持하는데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3個 團體가 한지붕 밑에 있어 平素 各種 行事마다 相互 協助로 調和를 이루고 있으니 合同新年賀禮會는 當然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儒敎 傳統思想은 民族의 歷史的 求心力인데 西洋 外來思想을 받아들일 때 아무 批判 없이 目前의 利益과 生活의 效用에만 執着한 나머지 傳統思想은 낡은 것이라 外面한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社會의 구석구석이 悖倫, 不信, 不條理, 非行으로 얼룩져 있고 頹廢와 墮落으로 荒廢化된 狀況을 빚어 낸 根本原因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道德性을 喪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爲하여는

첫째, 傳統的 道德性을 回復하여 忠孝 · 崇祖 精神과 같은 基本 倫理가 뿌리 내리도록 努力하고

둘째, 子女들에게 禮儀 廉恥의 德目을 몸에 배게 하고 生活化하는데 全力을 다하고

셋째, 人間敎育은 父母가 모두 敎育者라는 認識下에 家庭이 子女의 人性敎育의 道場이 되도록 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經濟가 아무리 發展해도 社會秩序와 紀綱이 隨伴되지 않으면 先進國隊列에 進入하기 어려우므로 기계적 法治主義가 가진 短點을 傳統思想으로 補完하여 社會紀綱을 바로 세워 秩序 있는 나라를 이룩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元老분들이 자라나는 青壯年의 선구자로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努力합시다.

丁亥年 새해에도 내내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기 바랍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健順五常 · 秉彝好德

- 博約會釜山支會長 新年辭 -

金時泰會長

평소 우리 博約會를 아껴주시고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博約會 본부에서는 작년부터 '할아버지가 엄마를 통하여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라는 자녀교육에 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북지방의 각 지회에서 부녀회원을 뽑아 강사요원을 교육시키고 그 강사로 하여금 고장으로 돌아가 교육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교재는 李龍兌 회장께서 몸소 강의를 맡아 정리하신 것으로 열과 성을 다해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금년 3월에 이와같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원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각 가정에 돌아가 자녀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健順五常에 더욱 힘써 주시고 秉彝好德 正爾谷者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退溪先生 言行錄

이덕홍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예》에 집안 어른[家長]이 나를 시켜 손님을 맞이할 때, 밖에서는 손님에게 절하지 않고, 손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절을 한다.」 하니 옳습니까? 하니, 선생은 「그렇지 않다. 어른을 대신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온당하지 않다. 만일 어른이 친히 나가 맞이한다면, 우선 잠깐 절하지 않고 피했다면 이것은 무방하다.」 하였다. (이덕홍의 기록)

德弘問曰 或云 禮家長使我 出迎客 我出不拜客 客入而坐定然後拜之 是否? 先生曰 不然. 我代長者 迎之而不拜 於義未安. 若長者 親出迎 則姑避不拜 是則可矣. (李德弘)

이덕홍이 물었다.

「공자의 말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라' (毋友不如己者)하였으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일체 사귀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선생은, 「예사 사람의 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기를 좋아하고, 나은 사람과는 벗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요, 일체 벗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 말은 아니다. 만일 한결같이 착한 사람만 가려서 벗한다면 이 또한 편벽된 일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과 사귀다가 그 속에 휩쓸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착하면 따르고, 악하면 고칠 것이니, 착함과 악함이 모두 다 나의 스승이며 만일 악에 휩쓸린다면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였다. (이덕홍의 기록)

德弘問曰 孔子曰 毋友不如己者. 如不勝己者則一切不與之交乎? 曰常人之情 好友其不勝己者 而不好友其勝己者 故 聖人爲如是者言之 非以爲一切不與之友也. 若欲一切擇善人爲友 則此亦偏也. 曰與惡人處 駸駸然入於其中 則奈何? 曰善則從之 惡則改之 善惡皆吾師也. 若駸駸入他 則亦何以學爲也哉. (李德弘)

飮食衣服之節(음식과 의복에 관하여)

선생은 손님과 음식을 들 때, 수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음식의 범절에 끼니마다 세 가지 반찬을 넘지 않았고, 여름에는 마른 포 한 가지뿐이었다. 일찍이 도산에서 선생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보니, 밥상에는 가지, 무, 미역뿐 다른 것은 없었다. (김성일의 기록)

先生對客飮啖 不聞匙箸之聲. 其飮食之節 每食不過數三器 暑月只脯乾而已. 嘗侍食陶山 盤中只有茄葉菁根海藿 無餘物矣. (金誠一)

손님이 있을 때가 아니면 제 철이 아닌 반찬을 차리지 않았다. (이덕홍의 기록)

非有賓客 則未嘗設不時之饌. (李德弘)

선생은 술을 마셔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약간 거나하면 그만두었다.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 양에 따라 권하였으나 그 정만은 듬뿍하였다. (김성일의 기록)

先生飮酒 未嘗至醉 微酡而止. 其接待賓客 隨量勸之 稱其情款焉. (金誠一)

선생이 서울의 서성(西城)안에 우거할 때, 현직 좌의정 권철(權轍. 자는 景由, 호는 雙翠軒. 權憕의 아버지)이 찾아왔다. 선생이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그는 반찬이 담백하고 맛이 없어 먹을 도리가 없었는데도, 선생은 마치 진미나 되듯 조금도 어려운 기색이 없었다. 권공은 마침내 젓가락을 대지도 못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입맛을 잘못 길러 이렇게 되었으니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한다. (우성전의 기록)

先生嘗入京寓西城內 今左相權公(名轍)來見焉. 先生具飯待之 淡饌薄味不可食 而先生若啖珍味 少無難意. 權公竟不能下箸根. 謂人曰 從前誤養口體 到此 甚可怩也. (禹性傳)

선생은 일찍이, 「나는 참으로 박복한 사람이다.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체한 듯하여 속이 편하지 않고

반드시 쓰거나 담백한 것을 먹어야 장과 위가 편안하다」 하였다.(김성일의 기록)

先生嘗曰 我眞福薄之人. 啖厚味則氣如痞滯不安 必啖苦淡然後 方利腸胃. (金誠一)

김취려(金就礪 ; 而精)가 복건(幅巾)과 심의(深衣)를 보내 왔다. 선생은 이것을 보고 「복건은 마치 승건(僧巾)과 같아서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그 제도를 잃은 것을 말함)」 하고 이에 심의를 입고 정자관(程子冠)을 썼다. 말년에 재실에 있을 때 이렇게 입다가, 손님이 오면 보통 옷으로 갈아입었다. (김성일의 기록)

金就礪 造幅巾深衣以送 先生曰 幅巾似僧巾 (言失其制) 著之似未穩. 乃服深衣 而加程子冠. 晩年齋居 如此客來 則改以常服焉. (金誠一)

경오년 9월에 선생이 도산에서 계당(溪堂)으로 돌아올 때, 정자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서 사립문을 나섰다.(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왔다.) 덕홍을 불러, 「오늘은 옛 사람의 의관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하였다. (이덕홍의 기록)

庚午九月 先生自陶山 將返溪堂 冠程子冠 衣深衣 (自京初造來) 親啓柴門. 招德弘曰 今日欲試古人衣冠耳. (李德弘)

退溪 門人錄

龜峯 金守一

中宗 22年 戊子年(1528년)에 安東郡 臨河面 川前洞에서 출생한 金守一의 자가 景純이고 호는 龜峯이며 본관이 義城이니 靑溪公 金璡의 아들이자 藥峯 金克一의 아우이다.

기품이 청수하고 용모가 단정 엄숙한 龜峯은 가훈에 따라 소년시절부터 退溪先生 門下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특히 心經을 깊이 연구하여 人心道心說에 관해 일가견을 가졌고 詩와 文章에도 능하여 주위의 선망을 받았다.

28세 때인 明宗 10年(1555년) 生員試에 합격한 후 여러 차례 鄕試에 장원으로 뽑혔으면서도 관직을 멀리하여 文科에 응시하지 않은 채 臨河 천변 傳巖에 정자를 짓고 학문을 닦으면서 향리에 남아 奉祭祀와 接賓客에 정성을 다했다.

이 무렵 名節 때마다 향리 선비들과 傳巖에 세운 정자에 모여 詩會를 즐긴 龜峯은 子姪을 가르치고 후생을 교도하는 등 어진 일에 솔선수범하여 향중과 인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매사에 강직하고 과단성을 지녀 모든 사람들이 心服하였다고 「景泗流芳」(義城金氏 靑溪公派世蹟)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가사에 전념하던 龜峯은 집안의 권유에 따라 42세 때인 宣祖 2年(1569년)에 두아우 雲巖·南嶽 등과 향시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庚午年(1570년)에 두 아우와 함께 文科에 응시하기 위해 上京하였으나 불행히도 雲巖이 병을 얻게 되자 南嶽만 응시케 하고 운암을 간호하면서 귀향 중 龍仁郡 金亮驛에서 아우를 잃는 참변을 당했다.

이때 金亮驛에서 병사한 雲巖은 龜峯보다 여섯 살 아래인 季弟로 형을 따라 陶山書堂에서 수학한 후 明宗 19年 甲子年(1564년)에 鶴峯·南嶽 등 두 아우와 同榜으로 進士와 生員 兩試에 합격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향리에 머물러 있다가 庚午年(宣祖 3年)에야 文科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37세로 요절한 것이다.

이런 참변을 당한 후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 연구와 자질들의 훈학에 정성을 쏟아 오던 龜峯은 宣祖 16年 癸未年(1583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自如道察訪이 주어지자 신병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임금에게 사은한 후 서울 여관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6세였다.

그의 文翰은 雲川(兵曹參議)과 大朴(進士)등 두 자제에게 계승되었으며 遺文은 聯芳世稿에 실려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安東 泗濱書院에 배향되었다.

無盡齋 朴 愼

朴愼의 자는 汝欽이요 호는 無盡齋이며 본관이 密陽이고 中宗 24년인 1529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家學으로 공부하여 학문이 뛰어났다.

天性이 곧고 올바르고 배우기를 즐겨하여 소년시절에 이미 經書와 百家의 典籍을 탐독하였고 20대에는 鄕試 등 大小科擧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나 官職에는 나가지 않았다.

이때 마침 退溪先生의 名望이 널리 알려져 京鄕各處의 선비들이 陶山으로 몰려들자 그도 退溪 門下에 들어와 심오한 학문을 수학하게 되었으며 도산을 드나들면서 趙越川 金東岡 黃錦溪 權松巖 李龜巖 등 여러 門人들과 親交를 맺고 道學을 토론하여 학덕을 쌓게 되었다.

無盡齋는 이때 퇴계선생으로부터 「晩悟篤志」란 親筆 글을 받아 평생의 座右銘으로 삼았으며 선생의 권유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퇴계는 明宗의 부름을 받아 여러 차례 사양해 오던 관직에 나가 成均館 大司成에 부임하게 되었고 이때 조정에서는 성균관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文學과 行儀가 뛰어난 선비를 간택하여 東西南北方에 신설한 學堂의 敎授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퇴계의 추천으로 西學敎授에 피임되었던 것이다.

이후 퇴계선생이 대사성에서 물러난 후에는 領議政 李浚慶의 천거로 童蒙 敎官에 피임되었으나 그 이상의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다가 1593년 65세로 壽를 마쳤다.

惺惺齋 琴蘭秀

琴蘭秀의 자는 聞遠이요 호는 惺惺齋이며 본관은 奉化이다.

中宗 25年인 1530년(嘉靖 庚寅) 禮安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趙越川을 따라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越川이 「君은 나의 벗이라, 나와함께 李先生을 뵈옵고 가르침을 받자」고 말하자 20세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薰炙를 받았다.

性理學에 관한 여러 서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은 惺惺齋는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며 그 후 學行으로 추천되어 縣監과 翊衛를 역임하였다.

宣祖 31년(1597년) 丁酉再亂時 明나라 援軍이 嶺南지방에서 倭軍과 抗戰할 때는 安東府 守城將으로 피임되어 援軍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軍務를 주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방은 倭敵의 침략에서 보호되었고 이때의 功으로 사후 錄勳을 받고 左承旨의 증직을 받았다.

宣祖 33년 享年 70세로 서거한 후 禮安 東溪祠에 祭享되었다.

編 輯 後 記

○ … 希望의 丁亥年을 맞으며 멀리 太平洋을 바라보는 黃金돼지를 봤습니다. 經濟를 되살리는 돼지, 健康한 돼지, 多産의 돼지이기를 기대합니다. 政治가 昏迷하고 世波가 거칠지라도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삶은 끈질기게 이어가야하고, 새로운 希望이 싹트는 福된 터전을 다음 世代에 물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어렵사리 93號 院報를 내 보냅니다만 李枝鮮 理事님, 俞英玉 博士님 두분 女流會員의 玉稿가 빛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는 3月 27日은 우리 退溪學釜山硏究院이 創立된 지 25週年이 되는 날입니다. 四半世紀를 엮어 成年期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院의 發展을 위해 애쓰신 여러 先輩 어른들의 勞苦에 머리 숙여 感謝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叱正과 함께 高見 주시기를 苦待하며, 보다 알찬 94號 院報를 위해 會友 여러분의 적극적인 同參과 協助를 바랍니다.

〈編輯長 金泰詢〉

나의 日常과 그 周邊

– 鄒魯之鄕 安東을 찾아서 –

李 枝 鮮
(本院 理事)

한해를 새로이 맞이하면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으면서부터 가슴이 쿵쿵 뛰던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

더욱이 우리 퇴계학 연구원보의 이름도 새롭게 단장을 했고, 원장님도 경륜과 학식을 두루 갖추신 존경스런 분이 버팀목으로 와 계시니 더욱 힘이 솟는 것 같다.

지난 1월 8일에 퇴계학부산연구원과 담수회 · 박약회의 세 단체가 합동으로 신년하례식이 있었다. 그날 특강에서 우리 퇴계학 김상훈 원장님의 명강의는 모두를 감동케 했고 그날 신규 회원 가입시킬 두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첫 소감이 너무 좋았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요즘 나는 지난해 5월에 직장을 퇴임했기 때문에 보는 이마다 '어떻게 지나시오' 인사를 받지만 실상 그동안 못다 한 일들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시간에 얽매여 못 갔던 곳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먼 곳도 마다 않고 음미해 보고 회사 출근 관계로 그동안 못했던 새벽등산도 매일 빠짐없이 해오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가을에 교육 갔다 온 이야기를 펼쳐볼까 한다.

지난 가을 11월 10일에 박약회에서 주관하는 예절강사 교육이 안동에 있는 안동예절학교에서 있었다. 전국에서 100명 정도 참석하여 1박을 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책 표지에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통하여 들려주는 이야기" 라고 되어 있었다. 750페이지나 되는 한 권의 책을 杏坡 李龍兌 회장님께서 장장 몇 시간 동안 열강하시는 참모습을 볼 때 사업가로만 알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글 중에서 한편만을 골라 소개를 한다면,

「스티븐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신사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차에 올라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차 칸을 뛰어다니고 고함을 지르고 분탕을 떠는데도 그 아버지는 아이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해서 스티븐이 한마디 했다.

'여보세요 댁의 아이를 단속 좀 하세요 손님들에게 폐가 되잖아요.' 그러자 그 신사는 스티븐을 힘없이 쳐다보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엄마가 한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 스티븐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바로 연민으로 바뀌었다. 지금 본 것처럼 남의 입장을 모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남의 행동이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한번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은 우리 고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날씨마저 청명했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우리 일행들은 퇴계의 얼이 서린 도산서원으로 접어들었을 때 내 평생토록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길은 처음이었다. 그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

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곳은 한국적인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자 양반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옛부터 인재(人材)와 문물(文物)의 성(盛)함을 논할 때는 반드시 영남을 꼽았고 그 가운데 안동은 또 영남의 으뜸이었다.

세상에서 안동을 성현의 고장이라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 까닭이 있었다. 서양문물이 동으로 밀려와 사조가 범람(汎濫)할 때 온 나라가 함몰되고 영남도 옛 영남이 아니었지만 오직 안동만은 옛 기운이 짙었고 훌륭한 전통 또한 그대로 남아 있어 아마도 고가세족(古家世族)의 根基가 심후(深厚)하고 선현이 끼친 가르침이 아직껏 민멸(泯滅)치 않은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이곳은 退溪 李滉과 西厓 柳成龍·鶴峯 金誠一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음은 물론 그 인물들이 세운 서원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런 이유로 안동여행의 중심은 위인들의 삶과 업적이 살아 숨 쉬는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 병산서원 등을 구경하는데 쏠려 있었다.

다시 우리 일행은 퇴계선생 종택에서 차를 한 잔씩 대접받고는 떡과 과일을 싸들고 서후면 금계동에 있는 학봉선생 종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 운장각(雲章閣)을 둘러보니 문적목록(文籍目錄) 한 권이 보이는데 위로는 학봉선생이 호당 시절에 지은 글과 중국과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쓴 일기 등 친필 문자 및 임진왜란 전후의 사료로부터 아래로는 조세문집 · 잡찬 · 역대의 호적 · 집안의 여러 기록에 이르기까지 만오천여점과 그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것만도 503종이나 되었다.

학봉은 원래 의성김씨가 500여년을 세거하고 있는 내앞[川前]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터에는 기운이 영험했던지 청계공 김진(金璡)의 아들 다섯 명이 모두 대과나 소과에 급제했고 자기도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래서 육부자등과지처(六父子登科之處)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 종가댁은 조선 중기의 주택으로 총 55칸의 단층 기와집인데 마당에서 보면 배산임수의 부지에 축대위에 지어서 마치 이층집처럼 보인다. 이 집에 흥미로운 점은 生氣가 응집된 방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만 아이를 출산한다는 점이다. 胎室 혹은 산방(産房)이라 부르며 대소과에 급제한 다섯 아들들이 모두 그 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김진(金璡)의 후손 김방렬(金邦烈)이 그 방을 헐어버리고 마루를 깔아 대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영천의 영일정씨네로 시집간 딸이 첫째와 둘째 아들을 이 방에서 낳자 집의 정기가 쇠약해진다고 여긴 탓이다. 그 딸은 할 수 없이 셋째 아들은 다른 방에서 낳았는데 예상대로 첫째와 둘째는 대과에 급제를 했고 셋째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주인되는 김시우(金時雨 : 김진의 15대손)도 태실의 발복을 믿고 있다. 맏며느리가 대구 친정에서 딸을 낳은 뒤로 후사가 없자 없앴던 태실을 다시 온돌방으로 꾸미고 해외에 근무하는 아들이 휴가를 얻어 돌아오면 그 방에서 아들 내외를 지내게 한 결과 손자를 얻어 대를 잇게 됐다는 신기한 온돌방 이야기도 들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러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 민속법 · 습관 ·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되는 것이 문화재가 아닌가 싶다. 다시 발길을 돌려 유교문화 자료를 망라한 국내유일의 유교문화박물관에 들러 眞城李氏 가훈인 成心向道('정성을 다해 도학을 이룩하여라'는 퇴계선생의 말씀)라는 청남선생의 글도 받아오면서 목민심서 · 논어 · 사자소학 등 예닐곱 권의 책도 구입하여 옆구리에 끼고 보니 무거운 줄도 모르고 마음의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몇 년 전 일이다. 일본에서 퇴계선생 현창비 제막식이 일본 황실에서도 많이 찾는다는 정행사 절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전 일본 수상 부인도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160인 정도 남자는 도포와 여자는 한복을 입고 참여했었다.〈10page에 계속〉

歷史를 記述하는 書法

유 영 옥
(부산대 강사)

史官이 史書를 撰述하는 데는 일정한 法式이 존재한다. 長久한 時間 속의 방대한 事實들을 史官의 눈으로 取捨하는 데도 法이 있고, 선택한 事實들을 史官의 손으로 배열하는 데도 法이 있으며, 史官의 입이 그 事實을 표현할 용어나 문구를 결정하는 데도 法이 있다. 事實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표현하는 눈과 손과 입을 통해, 이른바 역사를 보는 관점, 즉 '史觀'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로부터 敍史에는 編年體와 紀傳體 방식이 대종을 이루었다. 편년체는 年月日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某王 某年 某月 某日,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 형식이다. 기전체는 그날 일어난 일을 그 날짜에 다 적는 편년체와는 달리, 本紀世家志[書]와 年表列傳의 네 범주에 事實들을 나누어 기록하는 書法이다. 本紀에는 天子 朝廷의 일을, 世家에는 諸侯 朝廷의 일을 기록하고, 志 또는 書에는 문물제도를 기록한다. 年表는 各國 君主의 在位年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도표이며, 列傳은 다양한 群像들을 소개하는 개개인의 評傳이다.

孔子가 述而不作한 「春秋」가 편년체인 만큼, 편년체 역사서술 방법은 연원이 멀다. 하지만 紀傳體는 司馬遷의 「史記」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그래서 「사기」는 내용 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역사서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史書다.

〈9page에 이어서〉

그 중에 부산에서 5인이 참석하여 MBC 촬영기사도 같이 동행하여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3박4일만에 귀가해보니 도둑이 들어 금품을 모두 털어갔다. 황당하고 무섭기도 하여 찜찜함을 털어버리려고 문경새재를 밟기로 했다. 3관문까지 밟고 넘어오면 새로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옛 말을 믿으며 갔다 오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워졌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대사의 말이 새롭게 느껴져 왔었다.

나는 올 정초에 좋은 꿈을 꿨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올 한해는 그 꿈을 안고 부풀은 가슴과 기대 속에서 살 것이라는 나만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면 더 늙어 보여도 더 젊어 보여도 상관없는 일이다. 내 나이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향기를 지닐 수 있는지는 스스로의 몫이다.

며칠 전 8년 만에 우연히 만난 고객이 더 젊어졌다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은지 그가 그냥 해본 소리라도 좋다. 나는 마냥 즐겁기만 하고 그 말이 잊혀 지지 않고 귀에서 맴돈다. 앞으로도 나를 즐겁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살고 싶다.